



성동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서울 살곳이 다리 보수 복원 관련 문화재청 업무협의 결과 보고

서울살곳이 다리 복원사업 관련 문화재청과의 업무협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

1. 방문개요

- 방문일자: 2015. 7. 20.(월)
 - 방문부서: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, 수리기술과
(시설사무관 김석희, 시설주사 김철호, / 담당 이진우)
 - 방 문 자: 문화관광팀장, 담당주무관, 토목과 담당주무관, 설계용역업체
 - 방문목적: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“보류” 사항에 대한 업무 재협의 등
- ※ 보류사유
- 자전거 도로 확보 방안 강구
 - 도로 이설 및 차집관거 정비 등 서울시와 업무 재협의

2. 협의내용 및 결과

- 자전거도로 확보 방안 강구
 - 기존 설계안<1안>과 다리 하부 통과<2안> 방안 제시
 - ⇒ [문화재청 답변] 별도의 자전거도로 확보 방안이 없을 경우, 기존 설계안<1안>과 하부통과<2안>을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위원회에 적극 설득 바람
- 도로이설 및 차집관거 정비(토목공사) 등 서울시와 재협의
 - 차집관거의 안전점검 및 정비 등은 차집관거가 30년 이상된 노후 관으로 문화재 보수,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이며 시설물의 원인자부담 원상복구 원칙에 따라 문화재 복원에 관련된 사항이니 문화재청 예산을 투입해야할 것임
 - ⇒ [문화재청 답변] 광화문광장 조성공사(2009. 8. 준공) 또한 문화재복원 관련 사업으로 주변 시설물 정비 및 기반공사 등은 서울시에서 시행하였음
문화재 복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시설물 정비는 문화재청 예산을 지원할 수 없음

- 매물문화재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'우선 발굴' 협의
⇒ [문화재청 답변] 우선 '발굴'은 가능함. 단, 유형문화재과에
사업지침 변경요청 선행바람
- ※ 기존 사업지침: 2014년 사업으로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살곶이
다리를 보수할 것

- 2016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
⇒ [문화재청 답변] 2015년 7월 현재 2015년도 예산집행률이
0%로 2016년 신청금액 15억원 배정은 보류예정이나, 필요시
발굴 진행상황 확인후 살곶이다리 발굴복원 비용은 지급 가능

3. 그 외 추진사항

- 서울시 재협의(물재생시설과)
 - 방문일자: 2015. 7. 21.(화) 11:00
 - 방 문 자: 문화관광팀장, 담당주무관
 - 협의내용: 문화재청 협의내용에 대하여 알리고 기존 조건(안전점검,
물돌리기 등)에 대한 재검토 요청

4. 향후 계획

- 서울 살곶이 다리 복원 관련 국과장 회의를 통한 대안 마련
 - 일 시: 서울시(물재생시설과) 재검토 요청에 대한 공문 회신 후
 - 주 관: 행정관리국장
 - 참 석: 안전건설교통국장, 문화체육과장, 토목과장, 치수과장,
토목팀장, 하천관리팀장 등
 - 내 용: 살곶이 다리 복원 사업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. 끝.

지방행정주사 윤소영 문화관광팀장 정형래 문화체육과장 이현식 행정관리국장 07/22 김중순

협조자

시행 문화체육과-15715 () 접수 ()

우 133-70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/ <http://www.sd.go.kr>
 전화 02-2286-5203 / 전송 02-2286-5905 / / 대시민공개
 궁금할 때, 불편할 때 국번없이 120으로!